

존경하는 대한생리학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김종연 영남대학교 교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대한생리학회의 가치 제고와 사업이 모두 시도조차 하지할 못해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회원님, 안덕선 이사장님과 실행이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1985년 대한생리학회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선배, 동료, 후배 회원님과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친교와 학문적 소양을 넓혀왔습니다. 그동안 학회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많이 퇴색하여 아쉬움을 가진 것이 학회장에 출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회장으로서 대한생리학회의 사회적 역할과 회원들 특히 젊은 회원들을 위한 연구방법론 가이드 발간 등을 염두에 두었으나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회장 체제로 복귀하는 만큼 다음 회장단은 학회의 부족한 면을 잘 보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2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4대 대한생리학회장 김종연 올림